

나를 쓰고, 다시 만나다

2026 양천해누리복지관
나를 쓰는 시(時)간

나를 쓰고, 다시 만나다

양천해누리복지관 엮음

김동일 김대인 김영희 모주원 김미녀
배선병 전영선 이기호 임정호 차문길

「나를 쓰는 시(時)간」은
시를 매개로 온전히 나를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를 쓰고, 다시 나를 만나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솔직한 마음과 살아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연인M&B

「나를 쓰는 시(詩)간」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고, 마음에 담아 두었던 생각과 감정을 시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망설이던 분들이 한 편 한 편 시를 완성해 가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시가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집에는 참여자들의 솔직한 마음과 살아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온 용기와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소중한 자기소개이자 삶의 기록입니다.

밀도 있는 삶을 살아 낸 참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자들의 시는 우리에게 사람마다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번 작품집이 참여자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작품을 읽는 분들에게는 자기 삶을 깊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정을 따뜻하게, 다정하게 이끌어 주신 김승일 시인님, 참여자들의 글에 감동하고 재능을 나눠 주신 정다운 그림 작가님, 그리고 그 여정 내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온 여정을 함께 나눠 주신 참여자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2026년 7월
양천해누리복지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인이 살고 있습니다. 시인이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저는 그런 시인이 많아질수록 우리 일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인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요. 시를 잘 쓰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시인을 다정하게 호명하는 일입니다. 다정함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시인을 깨워 결국 세상으로 걸어 나오게 하니까요.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도 그런 기적을 만났습니다. 무려 11주 동안이네요. 김동일 아버님, 김대인 아버님, 김영희 어머님, 모주원 아버님, 김미녀 어머님, 배선병 아버님, 전영선 어머님, 이기호 아버님, 임정호 아버님, 차문길 아버님. 이렇게 다정하게 호명을 하자 어르신들의 마음속 시인이 세상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가운데 모래알처럼 흩뿌려져 있던 빛나는 단어들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문장을 앞에 두고 활짝 웃

으셨습니다. 그 햇살 같은 시간 속에 함께 있던 저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인생을 시로 그려 내며 과거와 다시 만나고 현재를 힘껏 끌어안으며 긍정할 수밖에 없는 미래로 점차 나아가셨습니다.

‘빛’이라는 시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쓰기 시작한 사람은 빛을 냅니다. 어르신들은 서로의 빛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박수를 칠 때도 참 다정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감동이, 기분 좋은 웃음이, 반짝이는 희망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보듬어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워 낼 때 비로소 한 줄기 빛이 우리의 눈동자에 맺혔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그러합니다. 삶은 혼자서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각자의 시간을 다정하게 해석한 후에 그것을 반창고처럼 각자의 상처와도 같은 시간 위에 파스하게 덮어 주는 일, 그것이 삶입니다. ‘당신 참 고생이 많았다. 애썼다. 사랑과 희망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깊이깊이 포용하고 긍정해 주는 일,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파스하게 삶의 의미를 덧대어 주는 사람들을 시인이라고 생각하면서 11주의 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 줄 때마다 따뜻한 손이 따뜻한 손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파스한 손의 파도라고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따뜻한 손의 파도, 김윤희 사회복지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윤희 선생님은 매시간 자신의 다정함을 풀어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보살핌 없이는

해누리 시 창작반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믿어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세계, 다정하게 호명하는 세계를 믿으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 행복한 말을 들었습니다. “시인님 덕분에 일요일마다 시를 계속 쓰게 됩니다. 시인님 덕분이니까 책임지세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도 빛이 납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저도 저만의 빛을 냅니다. 이런 빛은 자신을 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갑니다. 빛이 되어 가는 사람 옆에는 빛이 되어 가는 사람이 앉아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옆을 둘러보세요. 소중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눈빛으로 그려지니까 이것은 시입니다. 종이 위에 시가 그려지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시가 그려지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움의 크기가 한량없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헤아릴 수 없게 가슴 벅찬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힘든 몸이지만 용기를 내서 한 자 한 자 적어 나가시는 어르신들의 떨리는 손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 손을 잡아 주며 힘껏 응원하는 배우자분들의 눈빛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난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쓰신 한 어르신의 문장도 다시 들여다봅니다. 불변하는 빛의 속성을 떠올려 봅니다. 감쌌던 방으로 다시금 빛이 들어옵니다. 생의 안팎을 내다볼 수 있는 언어의 창이 생겨납니다. 어르신들의 시에 사랑과 용서, 관

용과 이해가 가득합니다. 그런 시를 낭독하는 모두의 목소리란 참으로 다정할 수밖에요. 나란히 앉아 시를 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저는 찰칵 순간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처럼 반짝이는 순간을요.

어르신들 각자의 삶과 사랑을 녹여 낸 시 57편을 모아 한 권의 문집으로 묶었습니다. 문집에 들어가는 삽화로 사랑과 다정을 표현해 주신 정다운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시 낭독회가 곧 열릴 것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멋진 낭독회장에서 어르신들이 한 작품 한 작품 낭독하시는 모습은 또 얼마나 빛이 나게 아름다울까요.

한 계절, 따스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맨 처음 전해 드렸던 말 기억하시지요? 그 말이 맞았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유일무이하게 아름다운 시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밝은 빛을 내며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에 꼭 필요한 빛을 내는 시인입니다.

시인계의 핫팩

김승일 시인

책머리에	4
시인의 말	6

김동일

누가 뭐라 해도	16
호르무즈는 잘 풀리리라 믿어요	
가족 여행의 즐거움	17
나의 가족	18
다시 피어나는 나의 이야기	19
런던 템즈강에서 서울 한강까지	20
이팝나무	21
수풀 속에서	22

김대인

한 여인의 마음	24
애썼다	26
어느 중년의 눈물	27
나의 그림자	28
품생품사	29
나의 어미 새	33
다 버리고 떠나갈 인생	34

김영희

나의 자랑	36
시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37
비 오는 어느 토요일 오전	38
패랭이꽃	39
이거 보이세요?	40

모주원

청춘 고구마	42
세월	43
아 옛날이여	44
아 세월아 세월도 KTX 타고	45
돋보기	46
아침의 믹스커피	47
견고 싶다	48

김미녀

우리의 힘찬 도약	50
공동 텃밭	51
세월	52
사랑하며 살자	53
순박함	54

배선병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56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	57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58
그는 걸으셨다네	59
누이를 위한 기도	60

전영선

시 창작반에서	64
단팥빵 선물 상자	66
내리사랑에서 치사랑으로	68
네 곁에서	69
백지	70

이기호

거울 속에 한 사람	72
세상으로의 복귀	73
도로 틈새에 핀 꽃	74
제일 잘한 일	75
비 오는 날의 회상	76
삼야의 다짐	77

임정호

아름다운 꽃	80
나는 다 보았다	81
꽃길	82
단추	83
우리들은	84

차문길

1948년 노래를 지금도 부르네요	86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자	87
네 개의 그림	88
생각 송이	89
선택한 단어들로 쓰는 나의 인생	90

시 창작교실을 끝내며 우리의 한마디	91
---------------------	----



김동일

나의 별명은 호르무즈, 호르무즈의 뜨거운 열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문학인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단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 그것이 나의 전부이며, 모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호르무즈는 잘 풀리리라 믿어요

밖에서 일하기 제일 좋은 날씨는 섭씨 25도에서 30도지요
한낮의 기온이 50도를 오르내리는 곳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50만 톤급 선박 세 대의 정박 시설
유전에서 유조선까지 이어지는 송유관까지
내 손을 거쳐 갔지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곳이 오늘 이란의 호르무즈 항이 될 줄이야
앉은 자리에서 절망감이 들 정도로 아파요
그 멀리 있는 곳이 나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이야

아픔이 생겼다면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과거의 아픔 외로움 부끄러움보다
과거의 아름다움 찾아 쓸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 여행의 즐거움

가족의 달을 맞이해 온 가족이 홍천 여행을 떠났다
꾸불꾸불 나무 사이로 누비다 보니
홍천에서 무궁화수목원 황성수목원을 지나
나무가 너무 우거져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계곡을
구불구불 지나 도착한 곳이 황성,
아차 이곳은 내가 날개를 뿜던 하사관 학교구나
앞마당이 팔봉산 옆 마당이 차악산 날개를 활짝 뿜던 그곳에서
막내 손주의 군 입대, 송별식 자리를 곁들이다 보니
나의 벅찬 가슴을 억누르지 못하고 집에까지 돌아왔다
나는 행복 그 자체였다.

나의 가족

내가 살아오면서
축하를 받은 것도 박수를 받은 것도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위력이고
힘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족이 더 늘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써 내려가는 손자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파이팅입니다.

다시 피어나는 나의 이야기

멀어 보였던 몸의 불편함이
갑자기 나에게 올 줄이야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하면서 복지관 선생님께
한글도 수학도 시 쓰기도 배우면서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고 애를 써 본다
흐렸다 맑았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 채로
오늘도 하루를 보내는구나
하얀 종이 위에 삐뚤빼뚤 빼곡히 써 내려가는
나의 처량함이 슬프구나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다짐해 본다.

런던 템즈강에서 서울 한강까지

만 10년을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내 옆을 지켜 준 고마운 당신

항상 고맙고 또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꼭 간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팝나무

사월의 끝자락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내일 모레면 오월이 오는구나
오월은 행사도 많고 좋은 날들이 즐비하게 늘어선다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까지 늘어섰구나
그렇게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졸졸 흐르는 냇가가 좋아지는 여름이 바짝 다가왔구나
새하얗게 피어난 이팝나무 꽃을 무엇에 비교할까
숲 사이로 피어나는 새하얀 꽃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물끄러미 서 있었다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생각하며 오늘도.

수풀 속에서

벚꽃이 파란 잎으로 갈아입는다
철쭉은 활짝 피어 화사하다
소나무 새순은 쪽쪽 뻗어 오른다

오르는 자태를 바라본다
금년 한 해의 무료함을 느끼게 하는구나

“나도 소나무순처럼
쪽쪽 뻗어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면서 오늘을 보낸다.



김대인

폼에 살고, 폼에 죽는 헛شب보이입니다.
화려했던 날들은 가고, 눈물 많은 시인이 되었습니다.

눈물 좀 흘리면 어때?
눈물 좀 흘리면 되지!
어차피 울면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응애, 응애예요!

한 여인의 마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오세요

여기! 값비싼 다과는 없지만
맛이 없더라도!

함께할
함께하는 벚들과 사랑을 먹고 가세요

먹기 힘드시거든 마음으로 드세요
살이 힘드시거든

여기! 함께해요

보셔요!

참 고맙습니다

그대의 해맑게 웃어 주는 모습이
행복을 주는 오늘입니다

그대의 고마운 수고를 어찌 알까요?
그대의 따뜻한 마음을 보며 오늘도 위로받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가려 합니다.

애썼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 내느라
그 힘든 삶을 그 딱한 삶을
가슴이 아파 상처로만 가득한 삶을
어찌, 어떻게 사셨오

당신, 참 존경스럽다
죽도록 힘들면서도 살아 내 줘서

살아가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 애썼다.

어느 중년의 눈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누워
생사의 길목에서 사라져 버린
나의 꿈과 희망
나 자신의 소중했던 꿈들은
뿌연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가고

죽으려, 죽으려 해도

내 자신의 동아줄이 항상 내밀어 주는구나

보고만 있노라면
하염없이 눈물만 흐른다...

나의 그림자

힘내세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곁에 항상 제가 있어요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걸어요

힘들고 지친 삶이
길고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면
그림자가 잠시 사라지지요

저는 잠시 멈추어
당신의 두 손을 꼭 잡아 드릴게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게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폼생폼사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 짓히는 울음소리가 들린다
응애, 응애예요
갓 세상에 나온 아기 얼굴,
땃줄을 목에 감싸고 부처님처럼 큰 귀와 큰 콧볼,
갓 나온 아기 얼굴이 선명하다
아기를 받아 준 주인집 할머니는
“예! 이놈 커서 큰 놈 되겠네.” 한다

온 동네를 거닐 때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영화배우 지나간다. 모텔 지나간다...”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여학생들이 웅성웅성한다
“대인이다. 대인이가 버스에 탔다.”

여학생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진다. 빠르다
서 있는 내 곁에 다가와 각자 가지고 있던
손 편지들을 한 움큼씩 쥐어 준다
나의 주머니는 한가득이다
또래 여학생들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온다
내가 집에 없어도 말이다
유리병 속 종이화 천 마리며,
손 편지를 코팅하여 엮은 선물들을

누나나 엄마한테 대인이 주라며
놓고 도망가듯 줄행랑이다

읍내 빵집에서, 만두집에서 만나자며
빵집과 만두집은 문전성시다
나를 보겠다고 나랑 사귀고 싶다고
가던 길 멈추어 빵집, 만두집 유리창 안을 바라본다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는 땅이 갈라지며 진동한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갔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쳐 본다

이건, 나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없는 예감에 빠져들고 있을 때쯤,
어린 마음 일찌감치 잠 청하나,
세간살이 부서지는 소리에 잠들 길 없고
비통하고 원통한 새 한 마리 외로운 몸 나의 그림자
하늘은 귀먹어서 하소연 소리 듣지 못하는구나
나의 울음소리 뒷동산에 울려 퍼지니

아무리 애를 써도 끝이 없구나

가엾은 새 한 마리 철장에 갇혀
이 넓은 세상 부푼 꿈 날갯짓 한번 못하는구나
지난밤 전쟁터 같은 울부짖는 소리는 온데간데없으나...
뒷동산에 새소리만 나를 반긴다
무서울 만큼 고요한 아침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들 일상생활을 한다

어린 새 한 마리만 외친다
내가 죽어야만 이 전쟁과 같은 삶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죽어야만 올 어미 새를 살릴 수 있다
외쳐 본다
그가 왔다 내가 그토록 외치던 어두운 그림자
그가 가까이 왔다
어린 새 한 마리만 가슴에 피멍이 들어
울부짖으며 뛰어 내달린다

5분도 안 되어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다
18세 소년은 울부짖는다
'나 좀 살려 주세요.'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직 꿈과 야망이 있어요. 살려 주세요.’
소리쳐 보지만 가망이 없단다
나의 몸속 에너지 점등 스위치가 하나, 둘 꺼져 가고 있구나
나의 몸도 싸늘하게 식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저 먼 하늘에 어린 새 한 마리가 나를 보며 울고 있구나
가엾도다, 너무 가여워서 비통하고 원통하여
눈물만 펄펄 흐른다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신문팔이 소년인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배달을 함께하며 온 동네를 거닐던 어여쁜 내 동무 모습
항상 자랑거리인 나의 모습

그래! 살아가는 게 슬프면 언제
눈물 좀 흘리면 되지!
눈물 좀 흘리면 언제
어차피 울면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응애, 응애예요!

나의 어미 새

꿈속에서라도 나오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 손을 꼭 잡고 힘들었자...

온갖 누더기 같은 힘든 삶 속에
지치다 못해 앓을 힘도 없지요

지난 세월의 물결에도 꺼지지 않고
가슴속 피멍이 물들어 덧나는 상처로

제 등에 짊어지고 있는 아픔의 무게를
어머니 곁으로 가져가시면 어때요

꼭 감싸안아 주세요
그러면 상처도 아픔도 없는 세상으로
힘찬 날갯짓으로 날아오를 거예요

대인아, 대안아! 살아오느라 살아 내느라
고생했다, 애썼다 라고 말 한마디 해 주세요
제 가슴의 상처로 남은 피멍도 사르르 녹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어디서 새가 될까요?

다 버리고 떠나갈 인생

왜 그리 못한 자존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비탄하고 미워했는지
그날이 오면 다 벗고 갈 텐데...

백 년을 살면 그리할까?
천 년을 살면 그러리요

이제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사랑해야지

야! 이 사람아
급할 것이 무엇이 있다던가?
그리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가?
지치고 힘이 들 때에
앉았다가 쉬어 가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떠날 나그네들 아니던가...

여보시게!
길 떠나다가 주막에 들러 목이나 축이고 가세나...



김영희

40년을 돌아온 문학할머니.
'목마와 숙녀' 박인환 시인의 시 낭송을 들으며 펄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해누리복지관 시 창작교실에 왔습니다.
이젠 울컥해도 피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 소녀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생애 첫 사랑거리가 생겼습니다

내 나이 스물네 살에 천사를 만나고
천사 아기를 낳았습니다

지금 예순세 살에 그 천사 아기가
예쁜 짝꿍 천사를 만나
또 다른 천사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꼭 닮은
천사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 생애 최고 사랑거리입니다.

시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시가 아팠다
많이 아팠다

너무 아파서 시집을 덮어 버리기를 40년

어느 비 오는 수요일, 복지관 시 창작교실에서

‘시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인입니다.’

아픔을 허락받았다
아파도 된다고 했다

안 좋은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시인이 되세요.’
‘그러면 아파해도 돼요.’

나는 지금 시를 쓴다.

비 오는 어느 토요일 오전

비가 약속 없이 내린다
초여름 맛이 토요일이다
출근을 안 한다

강아지 산책을 안 시켜도 된다
옥상 텃밭에 물도 안 줘도 된다

너무 평온한 쉼의 토요일이다

참 좋다
하 하.

패랭이꽃

패랭이꽃을 묘지에 심어 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다

장기 기증을 하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갔던 조카
치료의 고통에 쇼크사로 갔던 길고양이
아파 보였는데
제때 구조해 주지 못해
목을 가누지 못하며 가 버린 아기 고양이

내가 쓰러져 입원한 탓에
변비약을 못 먹어서 갔던 고양이

캣맘이었던 내가 입원한 탓에
밥을 못 먹어서 갔던 길고양이들.

이거 보이세요?

나는 해누리복지관 시간제 근로자다
뇌병변장애로 좌측 상하지가 불편한
심하지 않은 등급 장애자다

근로계약서를 쓰던 첫 출근 날
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가리키며
“이거 보이세요?”라고 묻는다

첫 만남
사회복지사님의 배려 깊고 열린 마음
따뜻함을 느낀 느낌이 긴 여운으로 남는다

취업의 꿈을 펼칠 수 있어 꿈만 같다.



모주원

고구마 과자 먹던 지난날을 그리워합니다.
어느새 얼룩덜룩 흰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한때의 생기는 없지만, 늘 하얀 꽃처럼 만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청춘 고구마

나는 묵은 고구마입니다
세월을 버리고 버텼지요
비쩍 말라비틀어진 묵은 고구마입니다
한때의 생기는 자취 없이 스러지고
얼룩덜룩 흰 곰팡이가 피었지요
머지않아 몸도 마음도 온통 하얀 꽃으로 만발하겠지요
흙에서 나는 다시 흙으로 저물어 가겠지요.

세월

세월, 붙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
참 빠르면 빠르고 느리다고 하면 느린 것
누구의 것이오리까 멋없는 세월
얄밋고 아쉽고 원망스러워

인생 여보랑 같이한 지가 50이 넘었네
가는 세월 어떻게 막으리이까
같이한 50년 세월 속에 뇌출혈로 쓰러져
24년을 당신 땀에 버티고 있소

여보 고맙고 감사하오
당신이 없으면 누가 케어하여 주었겠어요?
인생 50년을 헛되이도 보냈지만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고맙고 감사해요

남은 인생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지요
여보 끝까지 힘냅시다
미안하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믿고
완치하는 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당신의 못난 남편이 당신께 감사 감사해요.

아 옛날이여

어린 시절 보리밥도 못 먹던 시절
보리밥 한 줌을 소쿠리에 담아
처마 밑에 걸어 두었던 시절도 있었지
냉장고는 무슨 냉장고요
얼음 제대로 없던 시절
그땐 왜 그렇게 가난하였나

요즘 전쟁은 돈과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지
자녀들한테 옛날이야기하면
라면 먹고 살면 되지 그런다
밥도 하기 싫어 햇반 사다 먹는다
그러니 독거노인네 세상이지
그래도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

아 세월아 세월도 KTX 타고

떠났나 그렇게 도망쳐서
가지 않아도 괜찮아
10대에 눈에 콩깍지 끼었고
20대에 예뻐서 손잡고
30대에 아름다워서 마주 보고
40대에 좋아서 살고
50대에 사랑 때문에 살고
70대에 정 때문에 살고
80대에 책임감에 살고
나머지는 고맙고 감사해서 살고
은혜에 배반하지 못하여 살고
인생의 동반자와 50년
세월이 벌써 떠나가네
인생 후반전은 ○○의 보상을 받아야
덜 억울할까 기다려 본다

여보
나머지 인생은 행복의 책임감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은 저 천국이 그리워서 살고.

돋보기

머리맡에 둔 돋보기를 먼저 찾는 아침
펼친 책 위에 어지러운 까만 글들이
그제야 제자리를 찾아 가지런하다

흐릿한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도
작은 렌즈 하나 거치면 이리도 선명한 것을...

문득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의 주름진 얼굴이 들어온다
가만 보니 사람 얼굴은 안경을 벗고 볼 때에
도리어 곱고 편안하다
세월의 흔적과 미안함은 가끔 흐릿하게 보는 게 약인가 보다.

아침의 믹스커피

종이컵에 믹스커피 털어놓고
뜨거운 물 부어 휘휘 젓는 아침 9시쯤
달짝지근한 냄새가
베란다 창틀을 넘어온 햇빛과 기분 좋게 섞인다

매일 바삐 뛰던 짧은 날에
쓴맛 단맛 섞인 짧은 날에
여유를 왜 몰랐을까?

뜨거운 커피 후후 불어 한 모금 삼키니
참으로 평온하게 하루가 흐른다
내가 언제부터 커피 마니아가 되었지
식후에 커피가 없으면 서운하다.

견고 싶다

긴 세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못 견고 있다
그래도 걸어야 한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로봇의 힘으로라도 걸어서
소원을 이루고 싶다

어제도 로봇 배낭을 입고서 걸어 보았다
가능성은 있어도
불안하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김미녀

젊을 때 나의 별명은 공주님.
지금은 어쩌다 악동으로 변했을까?
우리 남편이 붙여 준 별명!

지금 이래도 늦지 않았으니 천사로 살아 보자!
아름다운 사람을 꿈꾸며 살아가는 시인입니다.

우리의 힘찬 도약

내 인생의 편한 생활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아픔으로
내 생활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픔을 극복하고 힘찬 도약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꿈을 안고 그대와 나란히 걸어가 봅니다
그래도 난 그대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어 줘서 고맙습니다 힘냅시다.

공동 텃밭

공동으로 텃밭을 운영하는 참석자가 됐다
식물을 심었다 자라는 과정을 보았다
뜯어서 먹는 먹거리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복지관 식구들과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날이 덥고 허리가 아파도
잘 먹었다고 한마디씩 해 주는 마음들
기쁨으로 나눠 주는 마음들이
나에게 다시 한 번 힘이 된다
몸도 좋지 않으니 그만두어야지
하면서도 계속하게 된다
고추 상추 가지 오이 잘 자라라
푸짐한 밥상으로 풍성한 먹거리가 마냥 행복하다
역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이 크다는 걸 느낀다
오늘도 행복함을 맛본다.

세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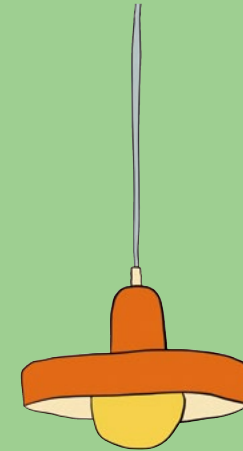
벌써 지나간 여름이 다가왔네 소중한 나의 영양제를 탐내
듯 먹어 버리려고 자꾸 내 곁에 와서 노래하잔다 앵앵 노랫소
리에 귀를 기울여 고놈 참 기다려 주지도 않고 바로 내 옆으
로 다가온다 성질도 급하지 조금 인내를 가지고 내 곁에 오
지 않았음 마지막이 되지 않았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든다 미우면서도 조금은 아쉬운 생각 내 곁에 와서 억울하게
매 맞고 먹은 걸 토해 가면서 쓰러지는구나 세상 밖에 나왔
음 우리들의 사랑도 받고 가지 왜 우리들에게 미움만 받고
가니 나도 너처럼 되지 말고 좀 더 사랑을 나누면서 많이 덕
담을 나누면서 착하게 살아 보자 나누어 주며 사는 재미도
즐거움이 된다 열심히 즐겁게.

사랑하며 살자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창문을 열고 한참 바라
본다 다듬지 않은 아이들의 말투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하하호호히히 마냥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구나 나도 저 아이들 속에 끼어 세상 근심 다 털어 버리고
친구가 되고 싶다 잠깐의 망각 속에 젖어 있다가 나는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고서야 휴... 한숨 쉬고 문을 닫는다 쉬 사
라지지 않는 마음 소녀들의 마음을 닮아 가고픈 내가 완전
히 사라지지 않았나 보다 저 아이들처럼 세월을 탓하지 않고
하루루 하루루 휘파람 소리를 내며 하루를 살아간다 마음
을 추슬러 보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아름답게
살아 보자.

순박함

순수한 마음으로
여린 새싹처럼
만지면 다칠세라
조심조심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순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주위에 등불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등불이 될 순 없을까.



배선병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인입니다.
믿음...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1985년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

1986년 6월 7일
불량배 아이들의 몽둥이
28일간의 뇌사상태
죽을 확률 98프로 살 확률 2프로
하나님의 손길
재활 치료
6개월간의 일어섬
회복되는 은혜
만 40년간의 감사의 기간

내겐 포기란 없다

풀리리라 풀리리라
너의 사방으로 막혔던 장막이 풀리리라
고난은 축복의 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1997년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는 레마의 말씀
1999년 여리고 작전 때 레마의 말씀
너의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리라

말씀의 능력

2000년 2월 19일의 축복된 결혼
사랑하는 아내의 웃는 모습의 아름다움
그대만이 나와 함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그는 걸으셨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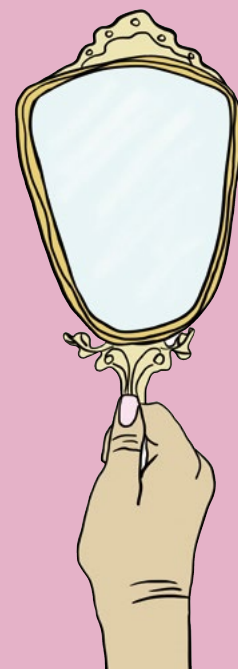
그는 걸으셨다네
나의 갈 길 대신하여
그는 걸으셨다네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네
엎히는 자보다 엎고 가는 자가 되라고
엎히는 자보다 엎고 가는 자가 되라고

그는 걸으셨다네
나의 질병을 대신하여
그는 걸으셨다네
나의 죽음 대신하여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네
엎히는 자보다 엎고 가는 자가 되라고
엎히는 자보다 엎고 가는 자가 되라고

누이를 위한 기도

제게 누이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가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이의 어진 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여!
누이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누이를 사랑합니다
누이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 주고자 하던 마음
주여, 그 마음을 사랑합니다
동생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마음을 축복합니다
누이에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형과 조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이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누이의 열정을 다시 한 번 회복시키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청년의 시절!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주여 누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누이에게 말씀만을 붙잡는 누이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병을 이길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붙잡는 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먹고 나누어 주는 누이 되게 하소서
자녀와 남편 그리고 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누이 되게 하소서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허락하소서
주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 받는 누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누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지시함 받는 누이 되게 하소서
사도 시대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누이 되게 하소서
주신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쓰는 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는 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아시지요?
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게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누이를 지켜 주소서
장수케 하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영선

20대 초반 우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시 한 권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40년이 지나 보다 넓은 시 세계를 경험하고
김승일 시인의 장단에 맞춰 왈츠를 추는 듯
백지에 수놓아 보았습니다.

환갑 즈음에 세상이 제게 주는 의미 있는 인생의 선물,
하얀 도화지에 인생을 스케치하는
화가 같은 시인이고 싶습니다.

시 창작반에서

내 나이 스물하나
그 시절에 시집 한 권을 만들었다
그때는 온통 나의 생각에 갇힌 이야기였다

지금은 시 창작반에서
그림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모으고
생각을 사물과 연결하기도 한다

낯선 몇 개의 단어에 상상의 날개를 달아
휘얼훨 생각들을 모아 펼치니
그릴싸한 한 편의 근사한 시가 되기도 한다

거침없는 감성적 순수함을 입으신 시인 강사님이 계시고
기대와 정성이 담긴 먹거리 바구니가 있고
거짓 없이 써 내려가나 고뇌가 담긴
각각의 인생 시들이 있다

아! 나의 인생에만 시선이 멈추었던
간혀진 창문을
화들짝 확장시키는구나

시 창작반에서
깊이와 넓이를 잴 수 없는
사랑을 만나기도 한다

새내기 시인들의 삶 들여다본다
감사한 인생의 우슬초 같은 언어들로
흰색 도화지에 스케치 되어
나도 사랑 추억
주머니가 넓어져
입가에 미소가 가득해진다.

단팥빵 선물 상자

5월의 창밖에는
초여름의 빗줄기가 내린다

투명한 창문 안에서는
도톰한 단팥빵 선물 상자가 열린다

선물 상자 곁에는
천연 발효종 천일염 천연 버터로

작은 메모로 건강 색동저고리를 입고
이내 백일 된 아가의 볼처럼 생긴
단팥빵이 나의 두 손가락을
건반 치듯 움직이게 한다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았던 단팥빵
선물을 앙 하고 깨물어 보니

솜털 같으나 시원하고 부드러운 구름
내 입속으로 쏙 들어와서
사르르 내 마음의 긴장도 녹아내린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나의 마음 샘플과
따뜻한 이웃이 있어
오늘도 자랑 나무를 심는다.

내리사랑에서 치사랑으로

내리사랑을 해 주시던 친정 어머니가
7개월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지난 4월 셋째 주에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가평 사역지로 되돌아가셨다

혼자 계신 지가 2개월 차 되는데
모두 주님의 은혜이다

은혜와 연단의 파노라마 속에서
주님의 손을 꼬옥 잡고
시간의 항해를 눈감고 하계 하셨고
그중 여러 씨앗을 심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도 보고
새파란 잎사귀가 집안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기뻐하나 지루하지 않게
근심의 걸림돌을 인내의 디딤돌로
시간을 감사와 소망으로

치사랑을 익어 가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

네 곁에서

내 언젠가 말했듯이
작은 미물까지 사랑하라
말보다는 행이 너를 지배하도록
침묵과 고독을 벗으로 삼아
꽃꽂이 나아가라
내 언제까지 너의 곁에서
그러나 멀리서 너를 도우리라
그분의 가시면류관부터 발끝에 닿을 때까지
내 뒤쫓아 가리라
네가 남겨 놓은 발자취를
내 다시 밟으며 말이다.

백지

나는 백지만 보면
이상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다

그럴 때마다 그 충동을
백지에 담아 본다

내 무엇을 위해
나의 마음을 펼치는 것인가

슬픈 일 기쁜 일을
누구의 그 무엇보다도
솔직히 쓰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이기호

나는 양띠입니다.
순진무구하지만 학창 시절 두목으로 불리었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기억의 편린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사유하는 시인입니다.
매 순간 나를 이끌어 준 사람들 덕분에 계속 살아갑니다.

거울 속에 한 사람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고 거울 속에 한 사람이 있다
얼굴은 나인데 지팡이 짚은 몸은 뉘노.

세상으로의 복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한동안 두문불출했어

친구의 권유로 어렵게 집을 나서
동창 모임에 참석했어

세상으로 다시 복귀했지
제2의 삶이 시작되었지

친구여 고맙네 감사하네
덕분에 여생을 당당하게 살겠네.

도로 틈새에 핀 꽃

길을 걷고 있다
도로 바닥 갈라진 틈에서
활짝 핀 노랑고 조그만 썸바귀 꽃이
내게 반갑게 웃음 지으며 인사하며 반긴다
생명의 신비여!
생명의 강인함여!
바닥을 보며 힘들게 걷는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다니
사랑하고 고맙다.

제일 잘한 일

좌편 마비가 된 채로 퇴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내가 강하게 면허시험장으로 데리고 갔다
몇 가지 테스트 후 장애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십여 년을 무사고로 운전했다 여기저기 맘껏 다녔다
아내의 권유를 들은 것이 제일 잘한 일이 되었다

여보 고맙소!

비 오는 날의 회상

비가 온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산을 쓰고 걷는다
어릴 적 우산이란 동요가 생각난다
파란 우산 빨간 우산 찢어진 우산
이 노래 부르던 때가 그립다
이 노래 같이 배우며
부르던 친구들이 보고 싶구나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한 비가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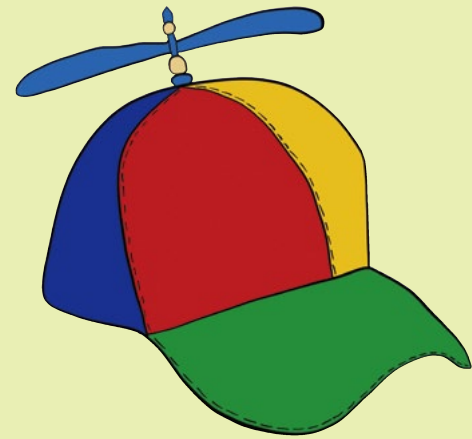
심야의 다짐

깊은 밤, 잠이 깼다
그냥 누워 있었다

느닷없이 돌아가신 네 분의 부모님
어르신들, 먼저 간 친구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리움과 아쉬움, 자책감 등이 어울려
심란하다 눈물이 흐른다

나도 언젠가 저 길을 가겠지
바르게 살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야지.



임정호

내 이름은 정호. 남이 부를 때는 정오야!
낮 열두 시가 정오. 그래서 별명이 낮 열두 시.
친구들이 부를 때는 어이 열두 시!
어린 시절의 해맑음을 기억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꽃

철쭉꽃 너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너 왜? 향기가 없니?
내년에는 너만 오지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향기도
네 얼굴에 품고 오너라.

나는 다 보았다

나는 시골 촌 읍내에서 직장을 다녔다
그런대로 불편한 곳 없는 건강한 몸이었다

퇴직 후 서울에 와서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 동창들도 만나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 뇌를 다친 뇌진탕...

슬픔이 한순간 다가온 것이다
슬픔을 생각할 지능도 없어져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때 환상을 보았다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환상이었다

나는 다 보았다.

꽃길

뒷동산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오솔길
나 홀로 산책한다 어릴 적 추억의 길 같아서
생각마다 기분 좋은 행복한 산책길
하얀 아카시아꽃이 떨어져 길이 하얗구나
꽃길이구나 이것이 바로 꽃길이구나
나는 꽃길을 걷는다 나는 행복하다.

단추

단추야 이리와
단추
우리 집에는 단추가 많다
옷마다 달려 있는 단추
아니고 또 있다 귀여운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단추다
이 녀석
아주 귀엽다
말만 못하지 우리 식구끼리 말하는 건
전부 다 알아듣는 것 같다
이리 와 하면 온다
와서 내 손부터 쳐다본다
혹시 내 손에 지한테 줄 고기라도 들고 있지 않을까?
없으면 멍멍
요 녀석 안 쥐 하면 뒤돌아간다
그 표정이 슬픈 얼굴.

우리들은

우리들은 아름다운 친구들

우리들은 우주놀이 게임을 하며 음악원에 가기로 한 게임

우리들은 놀이공원으로 향하는 재미있는 놀이

우리들은 날씨가 좋아서 다시 음악원으로.



차문길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주식회사 선경에 근무했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파견 나가 7년 근무하고

귀국 후 서울대 언어연구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화려함 뒤에 고독함을 유쾌함으로 채워 가는 시인입니다.

1948년 노래를 지금도 부르네요

천등산 박달재를 올고 넘는 우리 님아
물항라 저고리가 굿은비에 젖는구려
왕거미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굽이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2절도 불러 볼까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자

비가 옵니다 오늘은
우산을 가지고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손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네 개의 그림

성문 밖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과일을 세면서

기타 치는 여인.

생각 송이

양초의 빛을 보면

처음엔 뜨겁지만

여유가 생겨난다

생각이 송이송이

송이송이 떠오른다.

선택한 단어들로 쓰는 나의 인생

아내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나는 매일 장애인 차를 타고 가서
친구를 만났다
세차게 내리는 빗방울들이
내 가슴을 가끔 두드렸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천진난만하게 노래를 터트렸다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에도
행복이 종종 찾아왔었다.

| 시 창작교실을 끝내며 우리의 한마디 |

어떠한 문장보다 가족 모두 모여 좌담화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된 것이 반갑고 즐거움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움이 소망입니다. - 김동일 -

이 시집의 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시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마음’ 그 마음 덕분에 참 고마웠습니다. - 김대인 -

시인계의 핫팩 김승일 시인님의 말씀.
“시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인입니다.”
제 생애 처음 들은 말,
시가 결코 슬프거나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김승일 시인님 감사합니다. 핫팩이 맞습니다. 인정! - 김영희 -

내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글들... 그리고 감정들...

시 창작교실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활짝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승일 시인님과 김윤희 팀장님, 정다운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 배선병 -

시 창작반을 마무리하며,

복 받았다. 절대 놀고먹지 않았다.

서로의 다른 모양의 상처들을 글로 어루만져 승화시켜 시로 토해 냈다.

웃음, 울음, 박수, 경청 각이있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시선

그리고 굵고 우렁찬 목소리, 당당해진 어깨

빼곡히 자연스레 써 내려가는 글솜씨

모두가 매회 두 시간의 강의 시간을 채웠다.

이젠 시 쓰는 숙제가 없어 홀가분하다.

그러나 앞으로 만나지 못한다 생각하니 시원스럽다.

또다시 해누리복지관에서 글쓰는 시인으로

만날 날을 무리하여 그려 본다. - 전영선 -

여보, 함께해 주어서 마지막 수업까지 결석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

였소. 먹어서 좋고, 분위기가 좋았고

모두 참여율도 높고, 해누리복지관의 명물이었소.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모주원 -

몇 주 지냈는데 김승일 선생님, 김윤희 선생님

너무 정이 들었네요.

자주 이 시간이 그리워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윤희 선생님 얼굴 보며 그리움을 삭혀야 되겠지요?

많은 위로와 격려와 그리움을 주신

두 분께 감사합니다. - 김미녀 -

김윤희 선생님의 권유로 영접결에 시 쓰기 창작반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강의해 주신 김승일 시인님의 탁월한 지도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고, 제 삶이 매우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호 -

시 쓰기 공부는 참 재미있다.

새롭다. 내가 시를 쓰다니

써 보니까 재미있다. 내가 시인이 되다니

세월은 빠르다 벌써 수업이 끝나는구나! - 임정호 -

김승일 시인과 김윤희 선생님이 이끌어 주시는
매우 윤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 차문길 -

“장애인이 되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안 되고,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저희 활동할 때는 나로서 온전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들이 나를 온전히 마주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살아온 인생을 안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 창작교실을 준비하면서 김승일 시인님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업하는 내내 참여자들이 온전히 스스로를 기억하고 마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을 읽고 감동하는 이를 만나는 것은 복이지요? 정다운 작가님, 저희 글에 감동해 주고 마음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하는 내내 지난한 삶을 살아온 모두의 시간을 위로하고 싶었고 여전한 우리의 삶을 살아 낼 모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꼭 안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 김윤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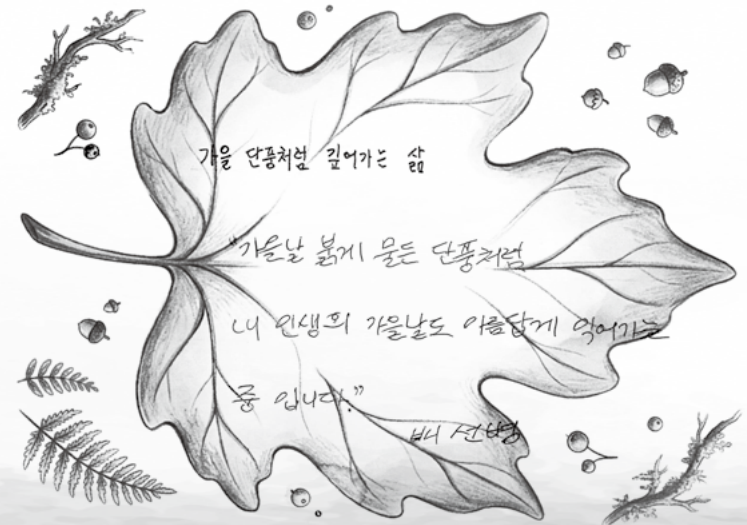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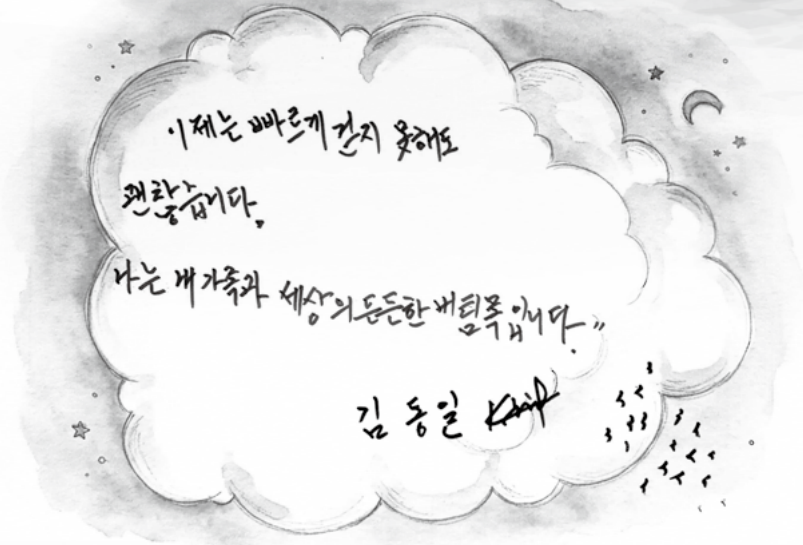
타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색다른 행복입니다. 그 마음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일은 울여름 가장 뜨거운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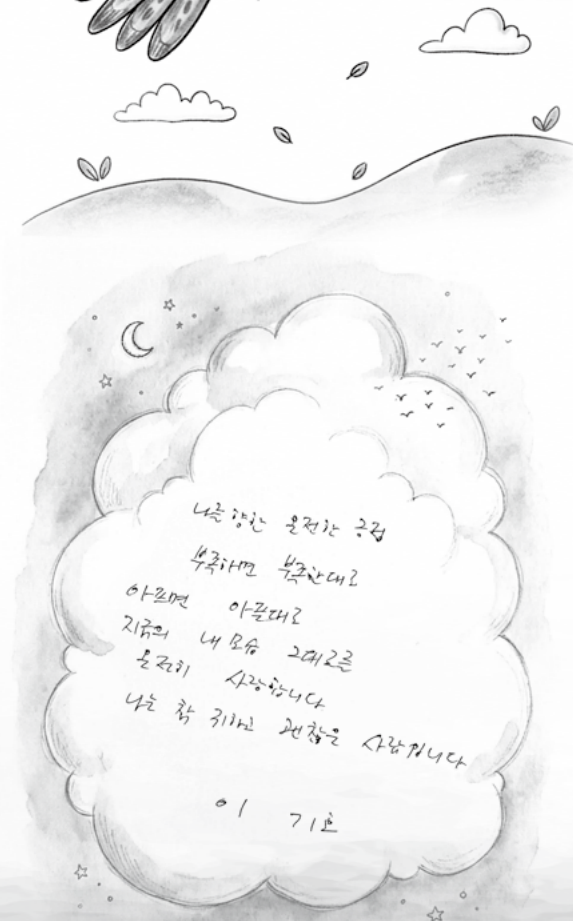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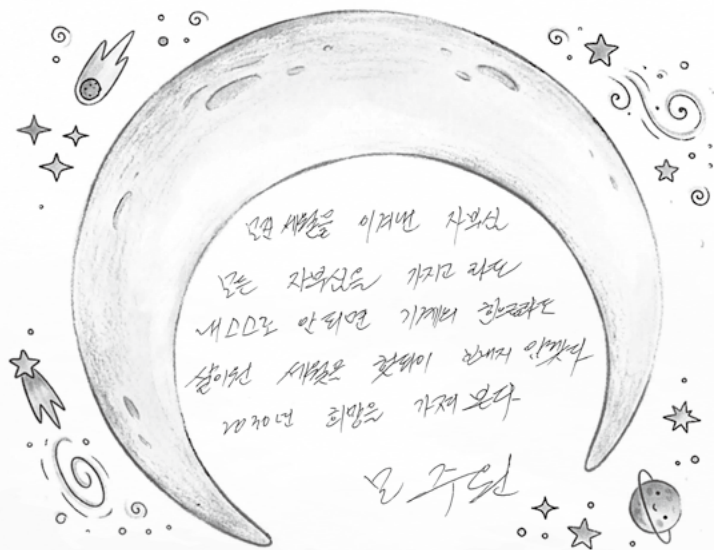
나의 때가 저기서 묻어나고 그의 눈물이 나의 생각에 머무를 때에 함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아 겹겹이 쌓여진 때가 탑을 이루고, 남몰래 훔치던 눈물이 강을 이루신 시인님들을 만날 때 나의 과거를 만나고 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래의 나를 용기 있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시인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다정의 시인, 김승일 시인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김윤희 사회복지사님이 참여자분들, 시인님, 저를 대하는 방법과 태도를 보고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시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향해 걸어가길 응원합니다. - 정다운 -







참여자들의 필체를 담은 시를 함께 담았습니다.

시를 읽는 즐거움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함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글씨의 모양과 속도, 눌러 쓴 흔적에도 그 사람의 삶의 시간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쓰고, 다시 만나다

양천해누리복지관 엮음

초판 인쇄 2026년 7월 15일

초판 발행 2026년 7월 20일

지은이 김동일, 김대인, 김영희, 모주원, 김미녀
배선병, 전영선, 이기호, 임정호, 차문길

엮은이 양천해누리복지관

펴낸이 신현운

펴낸곳 연인M&B

기획 여인화

디자인 이화정

마케팅 박한동

홍보 정연순

등록 2000년 3월 7일 제2-3037호

주소 0505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3(자양동 628-25) 동원빌딩 5층 601호

전화 (02)455-3987 팩스 (02)3437-5975

홈주소 www.yeoninmb.co.kr

이메일 yeonin7@hanmail.net

비매품

